

직장인 대학생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형 영어독해 학습 경험에 관한 연구*

정혜진 · 최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Chung, Hyejin & Choi, Mijeong. (2014). A Study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Experience of University Night Students in English Reading.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2(2), 219-23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elf-directed learning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an English reading class, and motivate them to become interested in extensive English reading through the self-directed learning method. The experiences and motivations of university night students who hold daytime jobs were analyzed using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Five major themes and sixteen minor themes were derived from the participan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for adult language learners with varied background knowledge and real-life experience show that self-directed learning can be an effective means of generating and maintaining interest in English reading. Additionally, the participants exhibited a very positive response to the self-directed learning experience.

주제어(Key Words):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영어 독해(English reading),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

1. 서론

학습자들에게 영어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중에서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질문하면 가장 부담을 덜 느끼는 분야는 영어읽기, 즉 영어독해라고 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향은 대학 교양영어 독해 수업에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하기 보다는 교수자에 의해 학습 받는 주입식 교육, 즉 문법-번역 위주의 수업 방식에 주로 기인한다고도 볼

*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수 있다. 실제 읽기에서 어휘도 찾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이 적어서 학습자들에게 대학 교양영어 수업은 교수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예습을 하지 않아도 수강 할 수 있는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어에 자신이 없는 초급 학습자들의 경우 영어를 어렵고 난해한 것으로 여기고 영어책을 자연스럽게 읽지 못하므로 영어를 학습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많은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을 하도록 하고 현상학적 관점에서 심층면접을 통해 그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의미(Zimmerman & Schunk, 1989)하는데 이것은 확산적 사고를 기르며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심지어 영재교육 방법의 하나로도 연구 적용되는 자기주도적 학습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및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훈련이 필요한 과정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영어독해에 적용하여 그 경험을 상세히 진술하게 하고, 꾸준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확장형 영어읽기를 위한 내재적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대학 교양영어 독해의 짧은 수업시간이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확장형 영어읽기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도록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 교양영어 독해 수업이 교수자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고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 확장형 영어읽기로 전공분야의 원서 읽기에도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 선행연구 고찰

2.1 효과적인 영어독해

영어독해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으로 소통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다(Im, 2001). 읽기 과정은 쓰여진 사고와 경험이 연결되는 것으로 사고의 체계적 분석, 평가, 이용을 위한 언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적인 면에서 글을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으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지를 가늠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읽기는 속도, 훑어 읽기, 통사적으로 이해하기, 어휘습득, 문화적 배경과 세계적 지식 익히기 등으로 요약되어 한국과 같은 EFL의 상황에서 영어읽기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적용하여 볼 수 있다(Im, 2001).

영어독해를 할 때 학습자가 동료들과 함께 함으로써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

은 지식의 공유는 학습자가 소유한 지식을 다른 학습자에게 전파하는 활동(Liebowitz, J.2001)이며 구성원이 자신의 지식을 공개하고 그룹 내에서 확산, 저장하여 그룹 내의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학습자간의 지식과 정보의 공유, 생각 교환 등을 통하여 개인의 인지와 행동의 변화, 학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김인희와 김현철, 2012).

학습자들이 영어 독해를 할 때 생각말하기(think-aloud) 기법을 사용하여 함께 참여하며, 어휘력이 부족한 동료들과 함께 공유 할 수 있다. 영어 읽기 방법 중의 하나인 생각말하기(think-aloud) 기법은 내면의 사고 과정을 구두화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이 아이디어를 분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관찰자인 다른 학생들에게 사고과정을 볼 수 있게 한다(임은화와 임병민, 2011).

영어독해 학습에 있어 전략은 매우 중요하며, 영어를 학습할 때 새로운 정보를 받아 의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 중 하나인 인지전략은 특정한 학습자료를 다루는 것과 관련이 있다. 독해전략은 글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의미 추측을 하고 평가하여 배경지식을 활성화함으로써 글의 주제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나경희, 2008).

학습자의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정보처리 과정 중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인 하향식 과정이 있다. 학습자의 영어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으로 살펴 본 것이긴 하지만, 또한 영어 읽기에도 적용하여 보면 이미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학습자들이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데 문법-해석식 보다는 배경지식을 사용하여 이해하는 것으로 내용과약을 더 쉽게 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정혜진과 이은주, 2011). 내용선행지식(content schemata)은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적 지식, 그 분야에 대한 개인적 경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정순영, 2011). 새로운 지식은 개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될 때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을 통해 연구가 되었다(김경훈과 임미란, 2012; 김미숙, 2005; 김현진, 2012; 이현주, 2012; 전병래와 류철섭, 2001; 조미아, 2006; 편무태, 2002). EFL에서 영어학습 동기는 도구적인 동기로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언어를 습득하는 동기라고 볼 수 있다. 중간 이하의 실력을 가진 학습자들에게는 도구적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진성희와 신수봉, 2011). 이러한 연구결과들에서 나타나듯이 효과적인 영어 독해는 지식의 공유, 소통, 배경지식의 활용, 학습전략의 활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자기주도적 학습과 영어 독해

Knowles(1975)는 자기 학습의 정도를 결정하고자 하는 희망, 태도, 가치, 능력과 관련되어 학습목적을 설정하고 학습전략을 선택하여 이해하며 학습결과를 평가하는데 개인이 주도권을 가지는 과정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기술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을 조절해 나가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기조절 학습자는 의미의 산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학습과 동기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 필요한 대로 자신의 사고와 감정 및 행동을 조절 할 수 있다(조현철, 2011).

자기 결정성의 조절 정도에 따라 다양한 외재적인 동기들이 존재한다. 외재적인 동기는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부과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통합된 조절(integrated regulation) 등으로 단계가 나누어 질 수 있다. 외적 조절은 외재적 동기 중에서 가장 낮은 자율성을 갖는 상태로 외적 제약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재적인 동기의 가장 자율적인 형태인 확인된 조절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가치, 목표, 욕구와 통합될 때 나타나며, 조절이 내재화 되면서 개인은 자신의 가치나 정체성의 다른 측면들과 조화를 이루는 조절을 함으로써 그러한 행동의 조절을 완전히 수용한다(지순정과 전지현, 2008).

Knowles(1975)에 따르면 자신의 학습과정을 자신이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관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자기 학습속도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려는 노력이 스스로 이루어지고 자기 보상을 통한 동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은 당사자적인 참여와 체험을 전제로 하며, 자발적 의지와 통제력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입장이다(박민정과 최임숙, 2012).

3. 연구 방법

3.1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기주도형 영어읽기 학습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산업체 근무자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수도권 S대학교의 야간 대학생 9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관점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들이 수강한 강좌는 대학 교양 영어 수업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고, 이들은 이미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영어를 접한 시간이 오래되었으며 영어의 필요성은 알지만 충분한 학습 시간을 가질 수 없었던 집단이다. 실험도구로는 수업시간에 학습했던 교재를 사용하였다. 학습자들이 어휘를 알고, 매주 학습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기본적으로 어휘부분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아 문법적인 것은 거의 배제하고 어휘 중심으로 문장 내에서 올바른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여 문맥을 파악하는가를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어휘력이 부족하거나, 때로는 문맥에서 쓰이는 의미 파악이 힘든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예습을 해오지 않으면 동료들과의 학습에서 피해를 줄 수도 있기에 스스로 미리 읽기 학습을 해오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영어어휘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학습자들이 학습해야할 수업교재의 어휘

로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에 관한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 배경

이름	나이(성)	직업	영어 수준
참여자 1	29(여성)	기계설비	중
참여자 2	31(남성)	기계설비	하
참여자 3	29(여성)	기계설비	중
참여자 4	44(남성)	기계설비	하
참여자 5	36(남성)	기계설비	하
참여자 6	31(남성)	기계설비	중
참여자 7	31(남성)	기계설비	중
참여자 8	31(남성)	기계설비	하
참여자 9	26(여성)	기계설비	중

3.2 자료분석 및 평가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영어독해 학습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관점의 질적 연구이다. 현상학은 “개인이 겪은 경험은 어떤 것인가”의 질문을 통해 사물의 외양과 본질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신경림 외, 2004). 이러한 결과를 발견하기 위해 참여자들과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또한 본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범주화된 주제와 분석결과에 대해 전문가의 검증을 거침으로써 주관적 해석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방법 중 Colaizzi(남부현과 오정아, 2013 재인용, p137~138)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의 진술문에서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하고, 주제와 주제묶음으로 범주화 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문독해를 하는 학습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자와 면담한 녹취록을 청취한 후 문서화 하였으며 자기주도적 영어독해 학습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의미들로 5개의 대주제와 16개의 소주제들을 조직하였고 최종서술 자료가 자기주도적 영어독해 학습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4. 연구분석 및 결과

학습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녹취를 자료분석하여 자료분석 전문가와 영어학습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성향을 소주제로 분류하고 수업시간에 동료학습을 하였던 것을 추가하여 대주제로 분류하였다.

표 2. 5개 대주제와 16개 소주제

대주제	소주제
영어학습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학습에 대한 부담감 • 영어학습에 대한 기대감
사전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낌으로 알 수 있음 • 문맥에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음 • 교재내용에 관심을 갖게 됨 • 단어공부의 필요성 인식
그룹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을 받음 • 그룹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긴장하게 됨(경쟁심) • 공부에 부족한 시간을 해결함 • 교재에 대한 호기심
자기주도적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습의 필요성 인식 • 자기주도적 학습을 시작함 • 예습시간이 점점 짧아짐
학습 후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강 후 계속 영어책을 보게 됨 • 영어에 자신감이 생김

4.1. 영어학습에 대한 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영어는 여전히 두려움의 존재로 드러났다. 영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강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학습자들이 영어에 대해 갖게 되는 보편적 신체적 반응을 다음과 같이 “영어학습에 대한 부담감”과 “영어학습에 대한 기대감”의 소범주로 구분하였다.

● 영어학습에 대한 부담감

수업시간에 할 것을 사전 읽기 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동기유발에 도움을 주며 읽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본문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잘 이해 할 수 있으며 확장형 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참여자들은 영어 수업에 앞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들은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과 동시에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부담감은 강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수업에 대한 참여를 확장시키고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직장 다니며 공부하는데 힘들었어요. 사실, 한국어로 된 것도 책 한번 보고 가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영어 수업을 들어야 한다니, 마음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사실 영어라는데 해야 할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막상 그렇잖아요.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더군요.”(참여자 8)

“어휴... 머리아팠죠... 영어에 영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데, 회사 다니며 어떻게 공부하나? 싶었죠. 졸업하려면 들어야 하는데... 누구나 그렇지 않나? 나만 그런가? 영어는 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과 힘들다는 마음이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수업 들어갈 때 막연히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어요.”(참여자 7)

● 영어학습에 대한 기대감

학습자들이 스스로 영어의 한 문장씩 살펴보는 것은 아주 쉬운 영어 문장들을 이해하고 영어문장 구조 또한 파악 할 수 있는 스스로 학습동기를 제공한다.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는 것은 이미 성인인 학습자들이 짧은 수업시간에 지루하지 않은 영어 독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영어읽기 수업의 활성화로 교수자나 학습자가 지루하지 않은 수업진행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영어에 대한 갈망은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해외여행이나 외국 출장의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쁜 일과와 지친 일상은 영어학습의 의지를 힘들게 하였다. 이러한 영어교육에 대한 갈망은 영어 강좌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영어는 어렵게 느껴져서 그동안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웠거든요. 회사 다니며 (영어)학원 다닌다는 것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으로 할 수 있어서 조금은 기대되었죠. 이 기회에 영어를 열심히 해보고 싶었고,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참여자 1)

“전에 (해외)여행을 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사먹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한국 돌아가면 꼭 영어 학원을 다니리라 했는데, 막상 오니까... 회사 다니면서 새벽에 학원을 가려고 했는데...안되더군요. 그래서 강의시간표

에 영어 수업이 있을 때 조금 설레었어요. 이 시간에라도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참여자 3)

“회사일로 외국 출장을 자주 가는데, 그때마다 영어가 안되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동료는 잘 하는데, 저는 콩글리쉬만 하고 있으니... 그래서 새벽에 영어학원도 다녔는데, 회사 일에 전날 회식하고 오면 (학원을) 빠지게 되고, 쉽지 않더군요. 그런데 이번학기 강의시간표에 영어강좌가 있어서 기회다 싶었죠. 물론,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수업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했죠.”(참여자 5)

“인터넷에서 강의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서 출·퇴근 시간에 듣고 출퇴근시간에 전철에서 다른 사람들이 영어책 원서를 펴서 읽는 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수강신청 할 때 설레었어요.”(참여자 6)

4.2 사전학습

사전학습으로 영문 독해의 문장에서 어휘를 살펴보는 것과, 독해를 하기 전에 미리 영문 독해듣기를 해 봄으로써 “느낌으로 알 수 있음”, “문맥에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음”, “교재내용에 관심을 갖게 됨”, “단어공부의 필요성 인식” 등 4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소주제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느낌으로 알 수 있음

매 주 어휘와 듣기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들은 어학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원의 미리 듣기를 하면서 정확한 뜻은 해석되지 않지만, 그 단원의 내용에 대해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어휘와 듣기가 참여자들의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처음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그날 배우는 단원의 어휘와 듣기를 하시는데, 뭘 말인지 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업시간에 멍...하니 있었어요. 그런데, 한달? 정도 지나고 어휘 시험을 보고 나서인가? 수업시간에 (단원)듣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귀에 들리는 거예요. 물론. 모든 뜻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느낌이라는게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하는거...하하... 그때 진짜 신기했어요.”(참여자4)

“영어공부를 하기 시작한건 중학교 때 부터인거 같은데... 막상 영화를 보거나 외국인이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수업시간에 그날 배우는 어휘와 듣기를 해요. 반복해서 수업시간마다 하다보니까... 전부 이해는 못해도 대충 아... 지금 무슨 상황이구나...하는거 있잖아요.”(참여자 9)

● 문맥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음

어휘와 듣기에 매주 노출된 참여자들은 그 단원의 문맥이 의미하는 바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의미와 문맥의 이해는 수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수업시간마다 어휘와 듣기를 하다 보니, 전체적인 단원의 문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실 공부를 해도 전체적인 의미가 파악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의미와 문맥이 파악되니까 수업시간이 더 재미있었어요.”(참여자 1)

● 교재내용에 관심을 갖게 됨

어휘와 듣기를 경험한 참여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어에 대한 적응력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휘와 듣기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교재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켰고, 이러한 호기심으로 참여자들은 교재를 보게 되고 교재 내용에 있는 단어를 찾아봄으로써 영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문자로 된 영어를 읽는다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과도하게 피곤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만 영어독해를 듣게 함으로써 인지력이 훨씬 향상되고 글에 대한 지루함도 덜어 지게 됨을 다음의 내용으로 관찰 할 수 있었다.

“사실 처음에 수업시간에 어휘와 듣기를 하는데, 즐겼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밤에 공부하는데, 영어 듣기를 하니깐... 눈이 사정없이 감기더라구요. 그런데 어느 날 내 귀에 단어가 들리는거야. 어? 이거 뭐지? 했죠. 그리고 나서 책을 찾아보게 되더라구요. 내가 들은 단어가 뜻이 뭔지 찾고 있더라고 내가...”(참여자 2)

“단원 듣기를 할 때 느낌으로나마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니까, 책이 궁금해지고... 그러면서 책을 보게 되었어요. 책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찾게 되고, 조금씩 재미있어 지더라고요”(참여자 4).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영어는 부담되잖아요.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못하니까 부담되기도 했는데. 수업시간에 단원 듣기를 하는데, 처음에 안들리던 단어가 조금씩 들리니까... 재미있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교재도 재미있고, 책이 너무 좋았어요.”(참여자 3)

● 단어공부의 필요성 인식

어학에 있어서 단어 암기는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하는 학습이다. 그러나 관심 없이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쉽게 잊혀 지기 마련이다. 매 주 수업시간 진행되는 어휘와 듣기는 영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킴으로써 단어암기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단어를 모르니까, 수업시간이 힘들더라고요. 듣기를 해도 뭔가 들리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는게 있었어요. 왜. 그런거 있잖아요. 어릴 때 팝송 듣고 노래 부를 때 이상한 단어로 부르는거...”(참여자 7)

“사실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읽어주시고, 해석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수업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처음엔 조금 힘들었죠. 그러다보니, 수업시간에 따라가려면 아는게 많아야 하는데, 아는게 없으니까 힘들었어요. 영어를 잘하려면 단어암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쉽지 않아요.”(참여자 8)

“영어를 잘 하려면 단어가 필수잖아요. 하루에 10단어라도 외워야겠다고 생각해요. 하루 10단어 못 외우겠어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 들리잖아요...”(참여자 5)

4.3 그룹활동

학습자들이 활동하였던 그룹활동에서 배경지식을 사용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경쟁 관계를 가지게 되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스스로 학습이 된다. 동료평가란 학습자인 동시에 평가자로서 상대 동료의 결과물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교수학습의 기능과 전략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이며, 학습자들은 서로 상대가 기능이나 전략을 습득하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자신도 그 상황에 맞는 의미 있는 학습을 하게 된다. 교수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때는 아무 이의 없이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반면에 동료 학습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때는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김인희와 김현철, 2012; Topping et al., 2000).

학습자들의 조 모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었던 점을 살펴보면, 자신과는 다른 생각이나 다른 문제해결방식을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습효과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수업중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아 쉽게 이해 할 수 있었던 점, 자신이 가진 문제에 대해 피드백을 받은 점, 배우는데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 했던 점, 실생활에서 예를 찾아봄으로써 기억에 오래 남고, 실생활에 적용하기 쉬었던 점등이 유익했다고 반응한다(한순미, 2006).

영어능력이 상위에 속하는 학습자일수록 영어학습에 대한 자기독려와 불안감 조절 능력이 있어 성공적인 학습자의 경향을 띠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영어능력이 중, 하위권에 속한 학습자들의 경우 질문하고 수정 받는 것 즉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조은형, 2012).

본 연구는 “도움을 받음”, “그룹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긴장하게 됨”, “예습의 필요성 인식”, “공부에 부족한 시간을 해결함”, “교재에 대한 호기심” 등 5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그룹활동은 한 사람의 교수에 의한 일방적인 수업진행 방식이 아닌,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소그룹의 집단으로 진행되는 수업활동이다. 이러한 그룹활동은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도움을 받음

도움 받음은 그룹활동을 통해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스스로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진술되고 있다. 그룹활동을 함으로써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동료들의 도움을 통해 채우고 있었고, 이러한 학습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적인 수업방식보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다 보니 서로 도움을 주면서 할 수 있었어요. 잘 모르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도움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안에서 눈에 띄게 나아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참여자 1)

“일방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때는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었고, 딴 생각을 하고 있기에 집중을 잘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룹으로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누군가는 해야 했고 하다 보니, 예습도 하게 되더군요. 저는 공부하는데 그룹 활동이 도움이 되었어요.”(참여자 5)

“그룹으로 하는 것이 좀 하는 사람은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모르는 것은 친구한테 많이 배우고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참여자 9)

● 그룹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반면, 그룹활동이 도움이 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참여자 4는 영어 공부는 개인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룹활동이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답하였고, 교재에 대한 선행학습이 되어있는 참여자에게 그룹활동은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활동을 하면서 저는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안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구요. 하는 사람만 하고 그룹으로 뭉쳐놓으니 사실... 어차피 개인이 해야 하는 것이기에 안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렇고 저는 예습을 다했기에 별로 그룹으로 하든 전체적으로 하든 차이가 없었어요.”(참여자 4)

“그룹 활동이 나쁘진 않았는데, 솔직히 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그냥 물어가는 경향이 있었구요... 준비해온 사람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늘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룹 활동에서 크게 도움 받지 못했어요.”(참여자 3)

“여러 명이 하는 것 보다 저는 교수님이 수업하시고, 무작위로 시킬 때가 더 긴장되고 정신 차려서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여러 명이 하면 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하지 않으니깐요...”(참여자 2)

● 긴장하게 됨

그룹으로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은 서로에게 경쟁의식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경쟁의식은 참여자에게 긴장감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동료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하다보니 경쟁심도 생기더군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룹에서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무래도 긴장하게 되죠...그러다보니 더 잘하고 싶고, 영어 공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여서 기본기부터 다시 하려고 책을 찾아서 공부하게 되더군요”(참여자 6).

● 공부에 부족한 시간을 해결함

충분히 학습할 시간이 없었기에 동료들과의 학습활동을 통해 서로 도움을 받으며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해결점을 찾아가고 부족한 학습시간을 채울 수 있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다보니 시험공부를 할 여건이 잘 안되었는데, 예전 수업들은 일방적으로 하면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이번처럼 그룹으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고 하고, 수업시간에 미리 시험공부 겸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참여자 8)

● 교재에 대한 호기심

자기주도적 학습은 교재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켰고, 참여자들은 흥미를 갖고 책을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예습을 하다 보니, 교재 내용에 더 관심을 갖게 되더군요. 교재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하게 되고, 궁금하니깐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예습이 되고... 흥미를 갖고 책을 보게 되었어요.”(참여자 1)

4.4 자기주도적 학습

학습자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원리로 학습을 고립시키는 의미가 아닌 동료(peer), 교재, 교수자등 다양한 협조자들의 상호 작용으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여 스스로 독립성을 지니고 학습의 이해와 관련 된 학습을 스스로 하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애경과 조호제, 2010; 송경애, 2006). 또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면 직장에서도 망설임이 없고 적극적인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고 영어에 대한 친근감이 생기게 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해 본 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서로 통합된 자기주도적 학습은 스스로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학습을 이끌어가며 확장형 영어읽기에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강좌를 수강한 참여자들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습의 필요성 인식

그룹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영어독해학습은 참여자들에게 수업에 임하기 전 예습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충분하였다. 때 시간 진행되는 그룹활동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 것으로 진술되었다. 직장인 학습자들은 동료들과의 학습이 말로 표현되어 지는 것을 관찰 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학습의 의지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 읽기 수업을 하다 보니,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그룹으로 활동하면서 예습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무조건 예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지만...”(참여자 2)

“영어공부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공부를 미리 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 따라가기 힘들어서... 예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업교재로 예습을 많이 했어요.”(참여자 4)

● 자기주도적 학습을 시작함

교수의 일방적인 수업진행이 아닌 학생에 의한 수업진행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영어학습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수업시간 그룹 활동을 위해 준비한 스스로 학습은 영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있었고, 학습자 스스로 영어 공부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하였다.

“교재보다 수업이 자기가 하는 거였잖아요. 그 방법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각자 해 볼 수 있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각자 해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어요. 자꾸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어 책도 조금씩 읽고 있어요.”(참여자 8)

“한 다섯 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시간씩... 한 단원 할 때마다... 저는 다 모르니까. 모르는 것이다 보니 공부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예습을 해가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해석을 하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보다 잘 맞아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공부하고 예습하다보니 학교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교재가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어요.”(참여자 4)

● 예습시간이 점점 짧아짐.

처음에 쉽지 않았던 자기주도적 학습은 어느 순간 참여자들의 영어능력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수업 준비시간은 수업 초기 보다 점차 단축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시간 단축은 성취감과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처음에 혼자 공부할 때는 한 단원을 마무리하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는데, 매주 예습을 하다보니까, 한 단원 공부하는데 30분 정도로 시간이 단축되고 좋았어요. 그때 희열감(?) 같

은 것이 느껴졌어요. 하면 되는구나...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씩 (영어가) 재미가 있었어요.”
(참여자 1)

“처음에 공부를 하는데 단어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도 계속했죠. 수업을 들어야 하나까... 그랬더니 점차 단어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별로 안걸리고, 독해하는데 시간이 점점 줄더군요. 제 자신에게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일하면서 성실하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참여자 2)

학습자들의 진솔로 보아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함을 느끼고 실천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4.5 학습 후 태도

학습 후 태도로 자신이 목표로 하는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유발하는 것으로 본 수업의 참여자들은 영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에 대한 소주제로 “종강 후 계속 영어책을 보게 됨”과 “영어에 자신감이 생김”으로 드러나고 있다.

● 종강 후 계속 영어책을 보게 됨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 참여자들은 수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에 했던 그룹활동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기도 하였고, 수업 이후 영어 책을 읽어야겠다는 의지를 강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하는 동안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룹으로 활동하면서 독해하다보니,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한 학기동안 영어 독해를 공부하면서 시사에 관련된 것들과 독해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방학이 되어서 영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 책을 읽어요.”(참여자 1)

“수업을 듣고 나서 영어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방학 인데 지금도 영어 공부해요. 저는 그룹으로 하는 수업이 너무 좋았어요.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업이기도 했고... 그래서 토익공부 하려고 해요.”(참여자 3)

● 영어에 자신감이 생김

‘영어로 쓰여진 글들을 읽고 싶어요.’의 진솔에서 느낄 수 있듯이 참여자들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있었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핑계일 수 있는데요, 영어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영어가 두렵다는 생각은 덜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영어로 쓴 글들을 읽고 싶어요.”(참여자 4)

“읽기 수업을 하고 매주 예습을 위해 단어를 암기하다 보니 영어에 재미가 들었어요. 뭐

든 꾸준히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 토익학원 등록했어요. 토익시험 준비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려고 해요. 언제 이룰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겠죠..."(참여자 9)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이미 영어에 많이 노출되어 온 성인 대학생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방식을 통해 영어독해 학습을 수업 시간에 스스로 함으로써 영어 학습을 좀 더 흥미롭게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었는지를 현상학적 견해에서 살펴본 연구이다. 수도권 S대 산업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였고, 성적이 모두 부과된 후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사실적인 경험을 연구자에게 진술하여 주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기본적으로 영어학습을 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상태를 기본으로 정의를 내려 5개의 대주제와 16개의 소주제로 정리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에 대한 보편적 반응으로 두려움과 설레임을 가졌던 참여자들은 영어를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영어를 잘 해 보아야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은 영어과목이 해야 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많은 학습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데 대한 생각을 나타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라도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경험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습자들의 애로를 수업시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택하여 학습자들이 짧은 수업시간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언어적으로 문장 사이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어휘의 이해는 독자의 배경지식과 올바른 문맥을 파악하여 서로 연관 지음으로써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은 일주일에 한번 만남으로 인해 스스로 학습할 기회를 갖고, 지속적인 읽기 기회를 가질 수 있다(Im, 2001). 이런 것들이 학습자들이 학습하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참여자들은 영어 독해를 하기 위해 어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영어 독해이지만 전체 내용을 한번 듣고 난 후 전체적인 내용과약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를 읽고 이해함으로써 문장에 대한 이해력도 생기고 영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영어어휘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어 학습자 스스로 어휘를 찾게 되어 교재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험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글자 자체의 해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학습자의 언어 능숙도가 낮고 글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배경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보여지는 표현에만 의존하여 글의 전체를 이해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룹으로 생각 말하기(think-aloud)기법을 사용하는 학습법은 학생들이 동료학습자들과 학습함으로써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해준다(임은화와 임병빈, 2011). 이때 어휘력이 부족하면 영어 읽기에서 배경지식이 독해를 하는데 있어 내용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제 학습자들이 어휘를 추측하여서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초급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힘들고 또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어휘도 학습자들이 스스로 어휘를 자주 찾아보아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을 학습시간의 할애에서 경험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문맥의 의미 파악이 어휘를 스스로 찾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 확장형 영어읽기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은 영어읽기 수업에서 교재의 중요 부분 혹은 학습자가 의미파악을 하지 못하는 어휘들을 밑줄을 치면서 연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 어휘를 익히기 위해 대개는 사전을 참고하는 경향이 있다.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참여자들은 그룹활동을 함으로써 영어 독해 학습이 수업시간에 와서 일방적인 교수의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연습을 해오지 않으면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표현했다. 예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휘도 찾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됨으로써 스스로 학습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학습시간이 부족한 학습자들이 동료들의 예습활동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참여자들이 직장인으로서 자기주도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학습자들이므로 개인 학습을 하지 않아 동료에게 피해를 주고 방해하기를 꺼려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그룹활동이 영어 독해 수업이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미리 읽기를 해오며, 긴 시간이 걸리던 예습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효과도 가져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였다.

넷째,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으로 종강 후에도 영어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영어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확장형 영어 읽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하려는 결심과 경험을 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배경지식과 영어 독해능력의 이해도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내, 외재적 동기 부여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얼마나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험을 들어보며 확장형 영어 읽기의 흥미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또한 영어 학습을 학습자 혼자서 하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서 해결점을 찾아내어 스스로 만족감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커다란 학습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 학생들이 부담없이 영어 독해에 자신감을 가져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면 영어 학습을 흥미있게 진행할 수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영어 독해의 기능적인 면에서 학습자들이 훑어 읽기(skimming, scanning)의 방법을 사용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도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지식이나, 기초적

인 어휘에 대한 학습이 있을 때 가능하다. 능력은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어휘를 찾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학습의 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몇 학기동안 학습자들과의 수업을 통해 인지할 수 있었다. 초인지 학습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활성화 되어왔다. 사회 심리적으로 목표어에 대한 문화적인 동기는 목표어의 문화에 통합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 목표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연구(김영주, 2012) 결과가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초, 중,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었고 경험적 연구는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현상학적으로 살펴보고 이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학습자들에게 실제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 결정 등 학습요인이 영어 읽기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지식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평생학습자들은 암묵적 지식을 명시적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지식의 생산 활동에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명시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내면화시키는 자기주도적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는 연구(한순미, 2006)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의 문화는 자기주도적 학습에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며, 지식기반 사회에서 성공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 협력적 학습이 도움이 된다(김미숙, 2005).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은 영어 공부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부족한 시간에 영어 공부까지 해야 하는 상황은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진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입식교육에서 오는 결과로 지나치게 문법과 어려운 문장만을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이 아닌, 교사중심의 수업이 진행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짧은 수업시간이라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하면 좀 더 흥미를 갖고 수업에 임할 수 있으며 동기부여가 잘 되어 확장형 영어읽기까지 가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사회적 배경지식을 가진 직장인 학습자들은 학습자간의 소통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영어읽기에 도움을 주고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어 학습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영어에 대한 보편적 태도의 변화로 학습 후에도 계속해서 스스로 영어학습을 하려는 의지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중부권의 S대의 교양영어 독해 과목을 수강한 40여 명의 학습자들의 경우도 구체적인 인터뷰를 하지 않아 본 연구에 포함시킬 수는 없었지만, 개별 학습자들이 대체로 만족스럽게 확장형 영어 읽기에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영어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음을 연구자에게 이야기 해오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학습자들이 영어 독해 수업을 지루해하지 않고 흥미있게 관심을 가지게 되기 위해서는 교수자들이 좀 더 학습자의 위치에서 생각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라고, 혹은 수업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영어 독해는 무조건 교수자가 주입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기보다는 학습자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하면 단어 하나라도 스스로 찾게 되는 학습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수업시간의 제약으로 동료들과의 자발적

경쟁 관계가 생긴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자발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또한 스스로 학습한 것을 동료들을 통해 평가와 의미파악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보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차근차근 하나씩 스스로 살펴보는 시간도 필요함을 학습자들에게 인지시킴으로써 정확한 지식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를 오랫동안 학습하여 마치 영어 독해를 잘 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학습자들에게 정확하게 전체적인 학습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직장인 학습자들의 경우 이미 많은 배경지식이 있어 영어 읽기에 많은 초인지적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영어독해수업에서 교수자의 일방적인 교수방법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학습을 지루하게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은 미리읽기를 해야만 수업을 할 수 있었고, 교수자는 주입식의 교수 방법보다 스스로 동료들과 참여하는 수업 방법으로 학습자들의 학습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영문 내용의 이해도를 높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또한 동료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외적 동기와 함께 내적인 동기를 유발시키고, 스스로 참여하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많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영문을 읽을 기회를 많이 접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학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보다 창의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인 관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평가가 이루어진 한참 후에 인터뷰를 하게 되어 좀 더 많은 수의 참여자를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제한점이라고 하겠다. 향후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훈·임미란. (2012). 확장형 읽기를 통한 영어 독해능력 향상. *영어영문학*, 21(1), 155-168.
- 김미숙. (2005). 직장내 자기주도적 학습유형에 대한 이론적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1(1), 173-196.
- 김영주 외 4인. (2012). 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과 인지심리학 제약. *이중언어학*, 49, 59-86.
- 김인화·김현철. (2012). 소셜 러닝 기반 동료평가가 학습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교육학회논문집*, 15(2), 19-28.
- 김현진. (2012). 속독훈련이 읽기 속도와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이중언어학*, 48, 23-47.
- 나경희. (2008).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독해 전략 활용 및 활용에 따른 독해능력과의 상관관계 분석. *현대영어영문학회*, 52(2), 91-114.

- 남부현·오정아. (2013).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가족관계 경험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131-154.
- 박민정·최임숙. (2012). 학습기술이 향상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전략 특성에 미치는 효과. *교육연구논총*, 33(2), 1-30.
- 송경애. (2006). 자아존중감 및 자기결정 동기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 *보육행정연구*, 10(3), 177-202.
- 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 46인. (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양애경·조호제. (2010).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한국교육논단*, 8(3), 61-82.
- 이현주. (2012).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대학생 영어 학습에서의 상호작용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효과. *교육정보미디어 연구*, 18(1), 1-24.
- 전병래·류철섭. (2001). 초인지 독해전략 훈련이 영어 독해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19, 217-240.
- 임은화·임병빈. (2011). Think-aloud 기법을 활용한 이해점점 독해전략 훈련이 영어학습자의 독해력 및 독해 메타인지에 미치는 효과. *현대영어영문학*, 55(2), 203-227.
- 정순영. (2011). 배경지식 및 독해전략이 영어독해에 미치는 효과연구. *인문학연구*, 42, 333-358.
- 정혜진·이은주. (2011). 어휘문법지식 및 배경지식과 반복듣기가 중학생의 영어듣기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연구*, 16(1), 245-268.
- 조미아. (2006).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미치는 독서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53-71.
- 조은형. (2012). 한국전문대학 영어학습자들의 영어학습전략 분석과 학습인지양식에 따른 영어 수업선호도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26(2), 139-166.
- 조현철. (2011). 내외적 학습동기, 자기 결정성, 목표지향 자기 지각, 지능관 및 자기 조절 학습전략 요인들의 학습태도, 학습 행동 및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 *교육심리연구*, 25(1), 33-60.
- 지순정·전지현. (2008). 자기 결정성 동기가 대학생의 독해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연구*, 59, 348-368.
- 진성화·신수봉. (2011). 영어활용능력, 영어학습동기, 영어 성취욕구, 영어자신감이 영어 강의 만족도 및 효과인식에 미치는 영향. *공학교육연구*, 14(6), 16-23.
- 편무태. (2002). 대학신입생을 위한 효과적인 영문독해력 증진법. *영상영어교육*, 3(3), 95-112.
- 한순미. (2006). 대학생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 전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7(3), 1-30.
- Colaizzi,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In R.

-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Im, B. (2001). An approach to the improvement of EFL reading comprehension: through fast reading and meaning grasping.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17(2), 245-266.
- Jeong, H., & Hong, B. (2008). Model of learner oriented teaching-learning contents for self-directed learning.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33(6), 242-247.
- Knowles, M.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 and teachers*. New York: Association Press.
- Lee, J. (2010).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metacogn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nd school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8(2), 67-92.
- Liebowitz, J. (2001). *Knowledge management. learning from knowledge engineering*. Boca Raton, FL: CRC Press.
- Mikulecky, B. (1990). *A short course in teaching reading skills*. New York: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Topping, K., Smith, F., Swanson, I., & Elliot, A. (2000). Formative peer assessment of academic writing between postgraduate students.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25(2), 149-169.
- Zimmerman, B., & Martinez-Ponz, M. (1990).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51-59.
- Zimmerman, B., & Schunk, D. (1989).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Springer-Verlag.

정혜진(제1저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 노원구 공릉길 138(공릉2동 172번지)

인문사회대학 영어과

전화: 010-9303-9324

이메일: hjchung@seoultech.ac.kr

최미정(교신저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 노원구 공릉길 138(공릉2동 172번지)

어학교육연구원

전화: 010-6642-6447

이메일: mmjjchoi@hanmail.net

Received on March 1, 2014

Revised version received on June 2, 2014

Accepted on June 12, 2014